

# 화순군, 고인돌 축제 농특산물 판매부스 사전 교육

###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고인돌 공원 일원서 축제 개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총 16개 업체 참여

화순군이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3 고인돌 축제와 관련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업체 사전 교육을 고인돌 축제 현장에서 실시했다.

판매부스는 축제기간에 고인돌 잔디광장 맞은편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총 16개 업체가 참여하여 화순군에서 생산·가공한 농특산물(고구마, 된장, 벌꿀, 불미나리 인진쑥즙, 마, 돼지감자차, 버섯, 식혜 등) 70여 가지 품목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축제기간에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관련, 관광객 응대 요령, 판매부스 운영 준수사항, 택배 주문서 작성 요령, 위생교육 등 판매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봄꽃과 함께하는 2023화순고인돌축제”에 찾아오는 전국의 관광객에게 품질 좋고 싱싱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 및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나주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본격화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전라남도 나주시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의 핵심 기관으로 각광받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총력전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찬란했던 고대 문화를 꽃피운 마한사를 복원하고 이를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재청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을 통해 2024년 건립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는 1977년 반남면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남마한유적보존회를 비롯한 마한 관련 단체,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전문가, 기관·사회단체 등 시민 900여명이 위원회 명단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센터 유치를 통해 오랜 기간 그어는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전개해왔던 나주시의 마한사 복원 노력, 그간의 성과와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각오다.

명실공히 마한사 정비·복원에 앞장서 오며 마한의 수도를 주장해온 나주시는 지난 3월 17일 전라남도에도 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센터 후보지로서 나주가 갖는 마한의 역사성과 상징성, 당위성 등을 담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한 관련 유적·유물, 국립나주박물관·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등 핵심 연구기관·시설 운영 현황, 100년 넘게 지속해온 나주의 마한사 복원의 흔적과 노력, 정책적 성과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발대식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나주 유치 관련 기초 강연과 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홍보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날 발대식 이후 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나주는 내륙 바다였던 영산강 물길을 통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고대 문명 교류의 거점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말하자면 국보 금동관, 보물 금동신발과 같은 마한 관련 금은장식 위세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이 나주다.

2021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권 12개 지자체별 마한 관련 유적 총괄 현황에서도 총 2567개 중 나주시는 403개로 가장 많다.

단순 수치 뿐만 아니라 국가사적인 반남 고분군(국가사적 제513호), 복암리 고분군(국가사적 제404호), 오량동 옹관 가마터(오량동 요지·국가사적 제456호), 국보 제295호 금동관, 보물 제2125호 금동신발, 세계에서 가장 큰 옹관 등 나주에서 발굴된 마한 유산들의 상징성은 여느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독보적이라는 평가다.

구례=박진호 기자

## 구례군, 전국 최초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 개최

구례군은 오는 4월 7일 13시 30분부터 15시 까지 탄소 절감과 생태농업의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연생태지역인 전남 구례군이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흙을 살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생태농업경제,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국내 정관계와 학계, 농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선포식에서 청소년의 흙 살리기와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호소문 낭독과,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는 취지의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언문’을 발표한다.

군에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생명을 살리는 흙의 소중함과 미래의 농업방향 교육 ▲흙 살리기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흙 살리

기 박람회 개최 ▲ 흙 살리기 발전계획 수립과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흙 살리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태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영위하는 새로운 생태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담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첫 정례회 개최

담양군은 지난 3월 31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담양군과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주민자치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례회를 개최했다.

담양군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13일 담양군

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주민자치연합회와 담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공동협의회장 김용진 담양군 참여소통실장, 허진호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장)를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공모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피크닉세트 무료 대여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7주간 주말 관광객에게 피크닉세트를 무료로 대여한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이번 4월에는 ‘기차마을 봄보로봄봄’을 주제로 봄꽃 구경에 나서는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4월의 대표적인 달달이벤트로 ‘피크닉세트 무료 대여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다. 관광객들은 중앙광장 앞 행사부스에서 입장권을 제시하고 신분증이나 소정의 보증금을 맡기면 무료로 피크닉세트를 대여할 수 있다.

세트당 이용 시간은 총 2시간이고 사용 후에는 대여한 장소로 반납하면 된다. 피크닉세트는 방수 매트, 라탄바구니, 접이식 미니테이블, 톨립 조화 꽃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에 50세트 한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여서비스는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대여는 1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곡성=양해영 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안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